

うゝうゝ

動動

동동(動動)

〈동동〉은 고려시대 궁중정재의 하나인 동동무(動動舞)를 출 때 노래하던 성악곡으로, 노랫말의 각 장마다 ‘아으 동동다리’라는 후렴구가 있어 ‘동동’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으로 추측된다. 현재는 순수 기악곡인 관악합주곡으로 연주된다.

『세종실록』 권116에 의하면, 세종 29년(1447) 당시 『시용속악보(時用俗樂譜)』에 전하는 악곡 중 하나라고 되어 있다. 조선 초기 〈동동〉은 〈자하동(紫霞洞)〉·〈오관산(五冠山)〉 등과 함께 악공취재(樂工取才)를 위한 시험곡의 한 곡명이었고, 또한 향악정재 〈아박무(牙拍舞)〉의 반주음악으로 연주되었다.

『고려사(高麗史)』 권71에 의하면, 〈동동〉에는 1장·2장·3장의 구별이 있었다. 그런데 『악학궤범』 권5 『시용향악정재도설(時用鄉樂呈才圖說)』 아박조(牙拍條)에는 〈동동〉이 ‘동동만기(動動慢機)’와 ‘동동중기(動動中機)’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동동사(動動詞)의 서사(序詞)와 정월사(正月詞)는 만기로, 2월사~12월사는 중기로 노래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가사가 탈락된 오늘날에는 만기와 중기의 구분이 없어졌다.

〈동동〉의 악보는 『대악후보』 권7 『시용향악보』라는 제목 아래 오음약보(五音略譜)로 기록되어 있다. 가사는 없고 단선율과 장단만 수록되어 있다. 장단은 ‘고·요·편·쌍’으로 북 2회의 연타(連打)가 특이한데, 이 북소리를 의성화하여 ‘동동’이라는 이름이 붙었다는 설도 있다.

〈동동〉은 임종(林鐘)을 중심음으로 하고 있어 ‘삼지정읍(三指井邑)’, ‘세가락정읍(三指井邑)’이라고도 부른다. 이는 남려를 중심음으로 하는 〈정읍〉을 ‘빗가락정읍’이라고 하는 것과 비교된다. 악조(樂調)는 계면조(界面調)이며, 음계는 5음음계이다. 〈정읍〉과 마찬가지로 피리가 주선율을 연주하고 쉬는 동안 대금·소금·해금·아쟁 등이 선율을 이어가는 연주 방식을 사용하며, 장단도 〈정읍〉의 한 장단과 같다. 모두 8장단으로 이루어지는데, 한배(빠르기)는 불규칙하다.

악기편성은 피리·대금·소금·해금·아쟁·장구·북·박 등으로 이루어진다.

동

동

動動

세가락정음

三指井邑